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단순, 기쁨 제목: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성경: 전도서7장21-29절

21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22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23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24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

25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달는 데에 정신을 쏟아 보았다.

26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덧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27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28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 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 명 가운데서 여자 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29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전7:21-29> <표준역>

-우선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음이 몹시 상해서 기록한 것. 그래서 부정적이고 특히 여자 마음을 묘사한 부분은 지나치다 할 정도이다. (아마 당시 부부싸움 중이었을지 모름)

-하지만 우선 솔로몬의 경고로 인해서 심사숙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큰 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어차피 대부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을 경우 분명히 그렇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기쁨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초라한 기쁨 조각들을 모아 아주 작은 기쁨으로 연명하게 된다.(마치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개비처럼)

-왜냐면 기쁨을 만드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누구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다.

-나는 오래도록 한 가정을 상담해 왔는데, 최근에 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결단한 일이 있다. 부부관계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이혼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전혀 가망이 없게 되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나는 초 강경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 해 왔지만 결코 행할 수 없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코칭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사자로서는 몹시 굴욕적인 상황이었고, 큰 결단이 필요한 사항 이었다. 당시 이 부부는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것이 부부관계에 큰 걸림돌이었다.

-나는 당장에 남편 교회로 출석하고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 아내는 즉시 순종하였고, 결국에는 남편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그 주간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극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보상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너무 순간적으로 큰 보상을 해 주었다는 느낌 때문에 후회가 되었다. 남편은 자신의 보상을 되돌려 받고 싶었다.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부부관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십일조를 하도록 코칭하였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요청하는 셈이다.

-아내는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상받은 돈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만 했지 그 돈에서 십일조를 드리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데 동의하고 오늘 그것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처럼 상황을 돌파하고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을 끊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애초의 감동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니, 기쁨도 노락을 당하고 그래서 겨우 십분의 일만 건지게 된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

-원리는 이렇다. 기쁨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영을 무한정 부여하신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은 돌파를 보상으로 준다는 것이다.

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계신다.

의사들은 인간의 만족을 간단하게 세가지로 설명한다. 잘 먹고, 시원하게 배변하고, 시원하게 소피를 보고, 충분하게 잘 자면 사람은

아주 행복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복이란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난해한 이유를 백가지나 가지고 있다. 그 모든 문제들은 한결같이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중에 90%는 앞서 의사가 말한 것 세가지를 만족시키면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나머지 10%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들은 100% 만족하지 않으면 여간 찝찝해서 나머지 10%마저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본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채워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기뻐한다고 만족하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아야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비로소 진짜 만족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누리는 만족에는 너 빼고 나만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너의 만족이 나의 만족에 필수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의 상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만족을 얻으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솔로몬처럼 된다.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로 만족을 얻어 보려고 별짓을 다 해 보았다.

21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심지어는 남들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마음을 사용하는 것도 자기를 복잡하게 한다. 남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할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23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 지나치게 지혜에 의존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좋은 것이
로되, 지혜에 치심하지 말자. 지혜를 얻는 것이 답이 아니라,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24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
는가?

- 요즘 학자들이 이 말씀에 많이 공감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
을 다루어야 하는 요즘 과학자들은 거의 영적인 것을 연구하는 신학
자처럼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5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
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
을 쏟아 보았다.

- 심지어 솔로몬은 어리석음의 정도와 악함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려
고 애를 쓰고, 이 어리석음이 미친 정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데 몰두한 적도 있나보다.

- 상당히 범죄심리학적인 연구인데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과 같은 쾌거를 이룩했나 보다.

26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덧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 그러나 그토록 지혜로운 솔로몬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한계를 느낀 듯 하다.

- 너무 수 많은 여인들을 대하다 보니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질투
와 중상모략의 대가들이 모인 한 가운데서 여러 여자들의 마음을 만
족시키려 하다보니 이런 결론에 이른 듯 하다.

-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만약 한 남자가 한 여
자 이상을 만족시키려 하면 그는 올가미 같고 덧과 같은 여자의 마
음에 걸리게 되고, 쇠사슬 같은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다.

- 만약 솔로몬이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라면 그는 평안하고 행복한
말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

29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사랑 제목: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것들 말씀:
고린도전서13장 4-7절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
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
느니라 (고전13:4-7)

1. 너무 쉽게 잊어 버린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한시간 후에 맥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항상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에 여러번 말하기도 한다. 설교에도 유행이 있다. 방법은 내가 설교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학생때 공부에 실패한 사람 있으면 설교에서는 성공 합니다.

-면도도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난 깜짝 놀람.)

-설교도 맛이 있고, 급수가 있다.

-조는 사람 9급, 아멘 하는 사람 7급, 웃을 줄 아는 사람 5급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3급, 서론 본론 결론을 파악하는 사람 1급

-결단하는 사람1단, 삶에서 기억이 나는 사람2단, 전파하는 사람 3 단,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4단, 능숙하게 실천해서 돌파하는 사람5단, 설교자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6단, 설교했던 사람보다 더 잘 설교하는 사람7단, 설교 1개 가지고 10번 다려 먹는 사람 9단, 설교 지 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공부합니다.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2. 너무 쉽게 포기한다.

-특히 중요하고 단순한 것일수록 더욱 그러한다. 어려워서 포기하기 보다는 너무 쉽고 간단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포기되는 경우도 많다.

-흔히 그까짓거 대충 하다가 낭패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죄도 쉽게 포기할 것이니 염려는 하지 말고, 다만 좋은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자!

3. 너무 쉽게 미워한다.

-너무 쉽게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 쉽게 섭섭해 한다.

-반면에 너무 쉽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4. 너무 쉽게 화를 낸다.

5. 너무 쉽게 폭력을 사용한다.

6. 안되는 줄 알면서도 미련을 못 버린다.

7. 정말 가장 쉬운 것 - 사랑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을 불러 오는 것 - 사랑

그 자체가 기적의 것- 사랑

저절로 오래 참아 지는 것 - 사랑

저주가 확실하게 끊어지는 것 - 사랑

전혀 새로운 싹이 나는 것 - 사랑, 마치 씨앗에 싹이 나듯이.

쉬우면 무엇보다 쉬운 것 - 사랑
배신해도 배신한 줄 모르는 것 - 사랑

무엇보다 사랑 전문가가 되자. 그것이 가장 좋은 것.